

Ⅲ. ‘비즈니스 위크’ 選定 經營 10大 圖書

- 미국의 주간 경제지인 비즈니스 위크는 10대 경영 서적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 올해 선정된 경영 서적의 특징은 인터넷과 대부호의 역사를 다룬 책들이 많다는 점임

圖書名	內容	著者
Titan	철강왕 존 록펠러의 일대기	Ron Chernow
The House of Rothschild	로스차일드家の 발전사	Niall Ferguson
Gain	19세기를 무대로 기업이 사회 발전에 어떻게 공헌했는지 기술한 소설	Richard Powers
I'd Like the World to Buy a Coke	코카콜라 왕국을 건설하는 데 절대적 공헌을 한故 고이주에타 前 코카콜라회장의 일대기	David Greising
The Profit Zone	미래에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 구성 전략	Adrian J. Slywotzky, David J. Morrison, Bob Andelman
Burn Rate	인터넷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전략	Michael Wolff
Competing on Internet Time	마이크로소프트社와 네스케이프社간의 분쟁이 주는 교훈	Michael A. Cusumano, David B. Yoffie
Prosperity	향후 20년간 예상되는 변화와 그 의미	Bob Davis, David Wessel
The Corrosion of Character	새로운 자본주의 흐름 안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대응 양식	Richard Sennett
The Weightless World	디지털 경제 시대의 경영 지침	Diane Coyle

1. 「Titan」 : 존 록펠러의 인생

- 철강왕 존 록펠러(John D. Rockefeller Sr.)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억만장자가 되기까지의 인생을 다룬 傳記로서 총 35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록펠러는 미국 기업가 중에서 가장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인물로 이 책에서도 그의 다소 모순적인 인생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음
 - 록펠러의 모순적인 인생은 신앙심 깊고 자비로운 감리교 신자인 어머니와 약사빠른 상술로 능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은 받은 것으로 보임
 - 그는 사업에 있어서 수많은 비도덕적 행위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독점적인 스탠더드 오일그룹을 설립했으며, 개인적으로는 독실한 침례교도로서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고, 시카고대학(현재 록펠러대학)에 기부하는 등 많은 선행을 베풀었음
 - 스탠더드 오일그룹은 미국 석유산업의 90%를 점유할 정도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했으며, 이 과정에서 30년 이상 정부와 많은 갈등을 빚었음
 - 록펠러는 철도사업에서의 대규모 담합, 가격 교란, 산업 스파이, 정부 관리자에게 뇌물 제공 등 비도덕적인 전술로 대규모의 기업 집단을 이룩하였음
- 이 책은 미국 자본주의의 형성 과정을 록펠러의 일대기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전기의 획기적인 작품으로 기록될 만큼 가치가 있음
 - 또한 록펠러에 대한 모든 면을 낱낱이 폭로하여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인물에 대한 독자의 이미지를 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됨

2. 「The House of Rothschild」 : 로스차일드家の 발전사

- 로스차일드家の 발전사는 나폴레옹 전쟁을 치르면서 국제 채권시장의 신기원을 이룩한 로스차일드家の 이야기를 기술한 책임
 - 저자는 KGB의 특별 관리에 의해 거의 50년간 숨겨져 있던 기록까지 공개함으로써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면서 가장 예외적인 기업의 발전사를 묘사하고 있음
 - 또한 4개국으로 된 20개의 사료, 20,000통의 편지, 그 외 다른 역사적 기록 등 방대한 양을 조사함으로써 로스차일드家の 활동을 매우 사실적으로

로 기술하고 있음

- 로스차일드家の 5형제는 각각 파리, 런던, 비엔나, 나폴리, 프랑크푸르트 등 상이한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상호 유대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함으로써 유럽의 금융시장을 지배했음
 - 이들은 근대 머천트 뱅커의 모델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유대사회의 독특한 관습으로 이를 지속시켰음
- 그 동안 로스차일드家에 대한 책이 많이 출간되었지만, 이 책만큼 방대한 양의 새로운 기록을 기초로 한 책은 없었음
- 퍼거슨(Ferguson)의 「로스차일드家の 발전사」는 이러한 측면에서 로스차일드家の 업적을 상세하게 소개한 책으로 평가됨

3. 「Gain」 : 사회 발전에 대한 기업의 공헌도를 기술한 소설

- 이 소설은 기업의 성장과 개인의 시련이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19세기 사회 발전에 기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기술한 소설임
 - 저자는 기업의 성장에 따라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개인의 희생을 아이러니하면서도 비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음
 - 대표적인 성장 기업으로 그려진 클래어(Clare)社는 무역회사로서 19세기 비누 제조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미국식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기업임
 - 로라 보데이(Laura Bodey)는 난소암을 앓고 있는 42세의 여성으로 레이스우드(Lacewood) 소재의 클래어社의 북아메리카 사업부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화학 폐기물에 의해 병을 얻었음
 - 저자는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마치 사례 분석과 같이 매우 사실적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음
- 이 책은 미국식 자본주의와 그 폐해에 대해 박식한 지식을 바탕으로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여 많은 찬사를 받음

4. 「I'd Like the World to Buy a Coke」 : 故 고이에주타의 일대기

- 이 책은 코카콜라의 前 회장이자 CEO였던 故 고이에주타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으로서 코카콜라 쿠바 공장에서부터 CEO에 오르기까지의 과정과 그의 경영 스타일을 담고 있음
 - 고이에주타는 코카콜라의 쿠바 공장에서 처음 근무하다가 쿠바 혁명 이후 미국으로 건너와 최연소 부사장이 되었으며, 1980년에 사장으로 승진하여 1997년 폐암으로 사망하기까지 코카콜라를 경영했음
 - 저자는 고이에주타 前 회장이 코카콜라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이자 소프트 음료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기술하고 있음
 - 또한 콜롬비아 영화사의 매입과 매각, New Coke의 사례,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동유럽의 석권, 애틀란타 올림픽의 후원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음
- 이 책은 독자들이 읽기 쉽게 기술되어 있으며, 기업의 창업과 강력한 브랜드의 구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책으로 평가됨

5. 「The Profit Zone」 : 미래의 수익 실현을 위한 사업 구성 전략

- 본 서는 초일류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미래의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을 어떻게 재구성하여 성공했지를 보여주고 있음
 -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 데, 1부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성공하기 위해 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2부에서는 GE, 코카콜라,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디즈니 등을 통해 사업 재구성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3부에서는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과거 시장점유율이 사업 성공의 주요 척도로 작용하던 시대는 끝남을 알리고 이제는 수익의 실현만이 성공의 잣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수익을 실현하는 22개의 모델을 통해 기업이 어떻게 수익을 실현하는지 실제로 증명해 보임으로써 저자의 논리에 신뢰성을 더해 주고 있음
- 이 책은 모든 경영자들에게 많은 통찰력과 교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자에게 이기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음

6. 「Burn Rate」 : 인터넷 시대의 생존 전략

- 「Burn Rate」는 21세기판 골드 러시(Gold Rush)를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사업을 기업의 흥망성쇠 사례를 통해 분석한 책임
 -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사업이 어떻게 출현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며, 성장할 것인가를 기업의 일대기를 통해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음
 - 예컨대, Wired紙의 탄생, 타임 워너(Time Warner)社의 패스파인더(Pathfinder), 인터넷 탐색 엔진의 성장, America Online社, 마이크로소프트社 등의 사례를 통해 수시로 급변하고 있는 인터넷 사업 환경을 설명하고 있음
 - 저자 역시 인터넷 사업의 잠재력과 사업 가능성을 인식하고 “Wolff New Media”라는 기업을 손수 창업하여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였음
 - 이 책은 인터넷 관련된 사업이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모험적인 기업가들을 하루아침에 갑부로 만들 수 있으며, 동시에 빈털터리로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사업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종래에는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할 것임을 말하고 있음
- 이 책은 “일부 독자들로 하여금 실패를 고백하는 이야기로도 인식될 수 있지만, 사이버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며 인터넷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기업가들이라면 필히 읽어야 할 책”으로 평가됨

7. 「Competing on Internet Time」 : MS社와 네스케이프社의 분쟁이 주는 교훈

- 인터넷 시대에서는 경쟁 우위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네스케이프社가 인터넷의 막강한 위력을 활용하기 위해 전개했던 전략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음
 - 저자들은 네스케이프社의 前·現職 임직원 50명,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델컴퓨터 임직원 10여명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현장 관찰을 통해 현실감을 더해 주고 있음
 - 본 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인터넷 시대에서의 경쟁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으며, 2, 3장은 네스케이프社의 사업 개시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하기 위해 전개했던 유도 전략(Judo Strategy)에 대해 언

급하고 있으며, 4, 5장은 제품 설계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활용되었던 유도 전략을 더욱 심도있게 다루고 있으며, 6장은 결론으로 독자들에게 교육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

- 이 책은 단순히 네스케이프社와 마이크로소프트社간의 갈등을 기술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
 -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을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히 읽어야 할 책으로 평가됨

8. 「Prosperity」 : 향후 20년간 예상되는 변화와 그 의미

- 현재 미국 경제는 고도의 기술, 미국 노동력의 재교육, 글로벌화 등의 추세로 호황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음
 - 저자들은 이러한 세 가지 추세에 힘입어 미국 중산층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것이며, 그러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첫째, 컴퓨터 및 통신산업 등 고도의 기술 분야에 대한 2조 달러의 투자는 생산성 향상, 빠른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을 가져 올 것임
 - 둘째, 미국 노동력의 재교육은 수백 만의 미국인들의 시간당 임금을 7달러에서 17달러로 증가시킬 것이며, 이는 저학력자와 고학력자의 차이를 좁히는 데 도움을 줄 것임
 - 셋째, 글로벌화는 새로운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들의 수출은 늘어나고 미국내 투자가 증가를 달성시킬 것임
- 이 책의 논지들이 항상 새롭거나 옳은 것은 아니지만, 실속있는 내용, 구체적인 분석, 역사적 내용 등으로 그 동안 수많은 미래지향적 서적들이 간과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평가됨
 - 또한 변화하는 경제가 사람들의 실제 삶과 노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묘사하고 있음

9. 「The Corrosion of Character」 :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개인의 대응 전략

- 이 책은 리엔지니어링, 유동성, 혁신, 리스크 등의 새로운 자본주의가 개인

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식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 불변할 것으로 인식되었던 관료주의는 보다 유동적인 네트워크로 변화되고 있으며, 단기적 팀웍은 조직에 대한 장기적인 결속력을 대체하고 있음
 - 이러한 새로운 자본주의는 작업 양식, 업무 윤리, 개인의 사고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대응 양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경제를 보다 역동적으로 변모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반면,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목적 의식, 성실성, 신뢰성 등을 파괴하고, 근로자들은 언제나 처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됨으로써 조직과의 장기적인 관계가 사라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이 책은 개인적 특성의 혼란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이해를 높이고, '장기적 관점'이 사라지는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비해 필요한 개인적·공동체적 특성을 형성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됨

10. 「The Weightless World」 : 디지털 경제 시대의 경영 지침

- 「The Weightless World」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고 있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경영 지침을 제공함
 - 저자는 신재료와 소형화를 통해 물리적 규모는 줄이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현상을 '무중력 상태(weightless)'로 표현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 지식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음
 - 본 서는 업무와 성과의 정의 및 측정, 산업 재구성,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교육의 중요성 등에 '무중력 상태'의 경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저자는 경제적 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개인의 창의성과 경제적 번영을 이루기 위해 기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음
- 이 책은 글로벌 경영과 디지털 기술로 혼란스러워진 경제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최초의 서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윤운락 : wryoon@hri.co.kr ☎724-4106)